

## 최빈국의 경제 저발전 원인 분석: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김영완\*\* |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부교수

김경민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세 국가는 일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세계의 최빈국으로, 지난 몇 십 년간 심각한 경제적 저발전을 경험하였다. 본 논문은 최대상이 체계설계를 사용하여 세 국가를 비교 분석하고, 현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의 경제 저발전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국가가 공통적으로 가진 경제 저발전의 요인은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 부재 세 가지로 드러났다.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세 국가 모두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또한 리더십의 부재는 공통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향후 최빈국들의 저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의 경제 성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제시하는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 부재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8293).

\*\* 제1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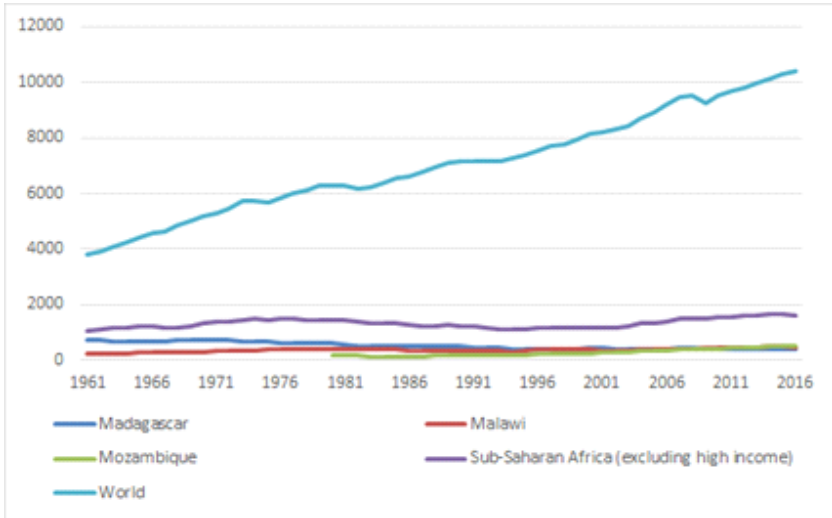
## I.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의 일인당 평균 국민 소득은 해마다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은 일인당 국민 소득이 미화 500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200년 혹은 300년가량 뒤쳐진 수준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국가는 과연 현재의 선진국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다각도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최빈국들의 경제 저발전에 대한 다양한 원인 중 거버넌스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며, 이중에서도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았다.<sup>1</sup> 본 논문은 최대상이설계체제를 사용하여 아프리카 남부의 3개국인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를 비교 분석하였다.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의 명목상 일인당 국민 소득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295불, 392불, 391불이다. 이는 세계 평균인 10,038불에 비하면 매우 적으며, 식민지 시대와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1960년대에 비하여 일인당 국민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모잠비크는 최근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모범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라위 역시 한 때 서구의 틀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로 인식된 적이 있으나 2017년 현재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기존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상이한 이들 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

1.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의 부재의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 방법을 다루는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를 사용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

〈그림 1〉 명목상 일인당 국민 소득 변화 추이

저발전 원인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이들 세 국가의 거시적 경제에 정통한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의 부재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모잠비크는 독립 후 15년 동안 지속되었던 내전으로 인해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제 발전이 오랫동안 지연되었으며 내전이 끝난 후에도 추가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암살, 시위, 소요, 폭력 사태, 탄핵 등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다.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말라위의 경우,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였다. 또한, 부패는 다국적 기업들이 말라위의 농업을 지배하고 말라위 농민들을 착취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모잠비크에서도 역시 부패로 인하여 풍부한 천연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고위층과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마다가스카르는 부패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으며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거의 모든 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

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세 국가 모두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이고 효율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며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다음 장에서는 경제적 저성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최빈국의 저발전이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가설을 확립하였다. 셋째 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넷째 장에서는 인터뷰를 통한 연구의 결과를 가설 검증과 함께 제시하였다. 다섯째 장은 논문의 주요 발견을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설명한다.

## II. 최빈국 저발전의 원인 및 가설의 확립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발전을 제대로 성취한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세계의 최빈국들로 일인당 국민 소득이 선진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발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오랜 식민 지배로 인한 수탈, 자원의 부족,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과학 기술의 부재, 교육의 부족, 숙련공의 부족, 부족한 자본, 서구 자본의 침략, 세계화 등이 있다. 아울러, 각 국가에 따라 저발전의 주요한 원인이 달라지기도 한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모든 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아니며,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발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을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연구해서, 사례별로 구체적인 저발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최빈국들을 하루 빨리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최빈국 저성장의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탐구를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거버넌스로 불리는 정치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Barro 1997; Knack and Keefer 1997; Svensson 1998).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경제 주체들이 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안정적인 재산권을 확보한 경제 주체들은 경제 활동에 집중하게 되며, 이는 결국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거버넌스가 확보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원조조차 받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거버넌스를 이루는 주요 요소로는 정치적 안정, 부패의 정도, 리더십의 유무 등이 포함된다. 많은 연구들이 저발전의 원인으로 최빈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주요한 이유로 꼽는데, 경제 성장에 대체로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더라도 정치적 안정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안정은 정권이 불규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폭력적인 시위와 폭동, 테러, 내전 등을 들 수 있다. 올슨(Olson, 1963)은 정치적 불안을 조장하는 사건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의 극단적인 형태인 정부의 붕괴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잘 밝혀진 사실이다(Alesina, Ozler, Roubini, and Swagel, 1996).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전이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정부의 부재 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해외 원조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해외직접투자 역시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거의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는 소말리아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왔으며 최근 내전을 겪고 있는 남수단 역시 현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정치적 불안정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한 연구 중에는, 자와디, 알포위, 지에디(Jaouadi, Arfaoui, and Ziedi, 2013)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이끌었던 사건들, 특히 혁명이나 시민들의 민주적 소요들이 어떻게 경제적 성장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드(Saeed, 1983) 역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폭력을 야기시키는 구조적 요소들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부존자원의 사용과 공공의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정부가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나, 이러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어떻게 경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음바쿠(Mbaku, 1988)의 연구는 정치적 불안정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저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권의 변화, 정부의 변화(효율성, 적응력), 폭력적 위기(쿠데타, 암살 등), 평화적 위기(시위, 반정부 발표, 스트라이크 등), 커뮤니티의 변화가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저발전과 정치적 불안정이 이들 국가들의 정치적 부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은 정치적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이와 동시에 정치적 부패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Abu, Karim, and Aziz, 2015).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부패 역시 경제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부패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행위에는 뇌물, 친족 등용, 횡령, 공공재 남용 등이 있을 수 있다(Bardhan, 1997). 기본적으로 한 국가에 부패가 만연할 경우 생산성의 저하와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부패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Mauro, 1995).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부패가 만연한 한 국가에 투자를 할 때 경제 부처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투자 외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외국 기업은 그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Shleifer and Vishny, 1993). 이런 상황에서 부패는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거두어지는 세금이 아니라 부패한 관리에게 지급하는 비 공식적인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부패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통적인 부정적인 견해와 함께 부패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뇌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적인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회사 역시 더 효율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Leff, 1968). 또한, 부패로 인하여 경직된 관료 체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도 있으며 민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시행이 촉진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부패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한계를 지닌다. 뇌물 관리에 뛰어난 인재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료들이 뇌물을 요구할 경우 경제 정책과 사업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부패가 결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Drury, Krieckhaus, and Lusztig, 2006).

부패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이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한 현실적인 사례 연구들에 의해서도 반박된다. 지마-브렘퐁(Gyimah-Brempong, 2002)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서 부패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부패가 한 유닛 증가할수록 매년 0.75과 0.9% 사이의 국내총생산이 하락하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0.39과 0.41% 사이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Mo, 2001)는 129개국의 부패 인식지수와 경제성장률을 분석하여 해당 국가의 부패가 1%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은 0.72%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패는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 인적 자원이나 투자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는 정치적 불안정을 조장함으로써 해서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패는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시원, 2013).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이외에도 거버넌스의 한 측면으로서 리더십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역시 많이 진행되었다. 리더십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을 의미한다. 리더십은 환경이나 구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보다는 리더라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리더십이라는 것이 특별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역할에 의해 결정되는지 아니면 개인이 그 당시의 환경과 구조에 따라 행동하는지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되었다(Berlin, 1978). 하지만 리더십이 경제성장이거나 국가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개인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제도에 보다 중점을 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정치학자들은 리더의 역할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에 유권자의 선호가 반영되는 정도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Lee, Moretti, and Butler, 2004).

리더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존스와 올켄(Jones and Olken, 2005)의 연구는 리더십의 변화를 추적하여 리더십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특히나 민주주의가 아닌 전제정치에서는 리더십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은 국가의 통화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며 이에 따라 경제발전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가의 형성에서부터 리더십이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가나의 콰메 은크루마(Kwame Nkrumah)나 기니의 아메드 세코 투레(Ahmed Sekou Toure)가 독립과정에서의 성공적인 리더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독립 후 국가 형성에는 대부분의 리더들이 괄목할만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Adamolekun, 1988).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리더십의 부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오카포-다이크(Okafor-Dike, 2008)는 1960년과 2004년 사이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리더십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나이지리아 대통령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은 나이지리아의 경제발전에 괄목할만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군사적 법령들이 부적절한 리더십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으며, 다시 부적절한 리더십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또 다른 연구 역시 리더십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로 이루어진 나이지리아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리더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통치를 해야만 정치적 통합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Ekene and Ugwunwanyi, 2016).

르완다와 부룬디의 비교 연구를 진행한 김영완(2016)의 연구는 유사한 문화, 인종, 역사를 가지고 있는 르완다와 부룬디가 서로 다른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르완다가 부룬디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해외원조의 활용, 국제시장으로의 적극적 편입, 중앙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인종 갈등의 봉합이라는 국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밝혀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폴 카가메(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르완다가 부룬디보다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는 주요 요소라고 설명한다.

결국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의 부재를 중심으로 살펴본 최빈국 저발전의 요인은 거버넌스라는 큰 틀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요소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심해지면 부패가 증가하고 리더십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리더십이 부재하면 부패가 증가하며 정치적 불안정도 높아진다. 또한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기가 어려우며 제대로 된 리더십이 나타나기도 어렵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독립적으로도 최빈국의 경제적 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도 경제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최빈국의 경제 저발전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 세 가지 요인으로 크게 축약되어 설명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최빈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설립하였다.

가설 1: 정치적 불안정이 심할수록 경제 저발전이 지속되거나 심화되었다.

가설 2: 부패가 심할수록 경제 저발전이 지속되거나 심화되었다.

가설 3: 리더십이 부재할수록 경제 저발전이 지속되거나 심화되었다.

### III. 연구 대상 선정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아프리카의 남부의 세 국가인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를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경제 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최대상이체계설계를 통하여 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였기 때문이다. 최대상이체계설계는 가능한 많은 점에서 이질적인 국가들을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국가들을 분석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경우, 상이한 체계의 특성이 가설 검증을 통한 발견에 특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일반화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남궁근, 2004). 본 연구의 대상인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는 언어, 문화, 종교, 식민 경험 등 국가가 가진 배경은 상이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명목상 일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세계 최하 위권에 속한 국가들이다. 세 국가의 명목상 일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을 기준으로 말라위는 295달러, 모잠비크는 392달러, 마다가스카르는 391달러이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에 따르면 조사 대상 187개국 중 말라위는 186위, 모잠비크는 182위, 마다가스카르는 183위로, 이 3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는 최빈국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나 다른 요소들은 상이하기에 최대상이체제설계를 사용하여 경제 저발전의 공통된 요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Przeworski and Teune, 1970). 또한 지리적

으로 서로 근접하여 있기에 현지 조사를 진행하기에 용이한 국가이기도 하다. 현지 조사는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25일 동안 이루어졌다.

말라위는 1천 6백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와 치체와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종은 체와족(Chewa)이 32.6%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롬웨(Lomwe, 17.6%), 야오(Yao, 13.5%) 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독교가 80%를 차지하며 인구의 13%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1964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현재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으며,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전세계 자유 순위는 63위이다. 말라위에서는 한국의 가장 큰 비정부기구인 굿네이버스 말라위의 소장과 말라위의 경제개발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IMF의 소장을 인터뷰 하였다. 또한, 굿네이버스의 사업장인 치오자 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말라위의 빈곤 상황을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모잠비크는 2천 5백만 명의 인구를 지녔으며 포르투갈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프리카인이 대다수이나 인종적으로는 다양한 부족이 존재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기독교는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교가 18%를 차지하고 있다. 포르투갈로부터 1975년 독립하였으며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고, 말라위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전 세계 자유 순위는 53위이다. 모잠비크는 천연 가스 보유량이 전 세계 9위 수준으로 다른 천연 자원 역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잠비크에서는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의 소장과의 자유전선 소속의 정치인이자 경제학자를 인터뷰하였다. 또한, 민간 사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모잠비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현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며 2천4백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말라가시와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인종은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말레이-인도네시아인(Malayo-Indonesian)과 아프리카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가 48%를 차지하며 다른 토착 신앙도 47%를 차지한다. 프랑스로부터 1960년에 독립하였고,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표 1〉 인터뷰 대상자 정보

국가	구분	직군	소속	직위	연령대	성별
말라위	공공부문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	소장	50대	남
	사적부문	비정부기구	굿네이버스	소장	40대	남
모잠비크	공공부문	국제기구	유엔세계식량계획	소장	40대	여
	공공부문	정부/정당	모잠비크자유전선	청년위원장	40대	남
	사적부문	기업	켄마레	팀장	30대	남
마다가스카르	공공부문	정부	기획경제부	국장	50대	남
	공공부문	정부	기획경제부	부국장	40대	여
	사적부문	기업	G24	팀장	30대	남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며 역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Partly free)’ 국가로 분류된다. 자유 순위는 56위를 차지하고 있다. 티타늄철석, 사파이어, 금, 석유 등 다양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광 산업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 경제 관료들과 민간 사업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세 국가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일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세계 최빈국에 속해 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이해는 인터뷰 당사자의 경험, 지식, 배경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먼저 경제 부문을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으로 나누고, 각 직군에 있는 인터뷰 대상자 중 각국의 경제 사정, 특히 거시적 경제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물색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일한 대상군을 인터뷰 대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로 인해 국제기구, 정부관계자, 비정부기구, 민간 기업 등에서 각 국가의 거시적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나라의 인터뷰 대상자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인터뷰는 경제 저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인터뷰 대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들에 대해 먼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표 2〉 국가관리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

- 1) 국민의 정치적 권리, 민의 반영 정도 및 언론의 자유(Voice and Accountability)
- 2)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 3)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 4)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규제 질(Regulatory Quality)
- 5) 법치의 수준(Rule of Law)
- 6) 공공부문의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자료: 세계은행 국가관리지수 홈페이지.<sup>2</sup>

다음,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의 부재라는 가설을 지니고 있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이 가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입견 없이 먼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인터뷰 결과에 대한 분석에 앞서,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의 부재라는 3가지 용어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자, 용어에 대한 실질적 조작화(operationalization)를 할 필요가 있다. 가설 설계 과정에서 이미 대략적인 개념을 살펴 보았으나, 본 논문은 보다 통일성 있는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표 2〉에서 보듯이 세계은행의 국가관리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를 사용하여 각 용어에 대해 개념화하였다. 세계은행은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거버넌스의 6개 분야에 대한 지수를 1996년 이후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이 중 정치적 안정성과 공공부문의 부패통제를 통해서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조작화가 가능하다. 국가관리지수는 정치적 불안정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테러를 포함한 정치적 목적의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는 무장 충돌, 폭력적 시위, 사회적 불안, 테러리스트의 위협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문의 부패 통제는 정부의 힘이 사익을 위해 발휘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측정된다. 정부의 사익 추구에는 정부 관료들 사이의 부패, 정치인들에 대한 공공의 신뢰, 공공 편드에 대

2. 각각의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가관리지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

한 분패, 공익 사업이나 수출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세 부과 등이 포함된다. 정치적 리더십은 국가관리지수에서 정부의 효율성과 가장 비슷하며,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을 이러한 정부의 효율성을 이끄는 리더의 존재 유무로 측정하였다. 정부의 효율성은 공공 서비스, 시민 서비스에 대한 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공공서비스가 가진 자유의 정도, 정책의 형성과 이행의 질,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헌신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가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종속변수인 경제발전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를 통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와 같은 조작화에 근거해 각 개념들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뷰 분석에도 이를 적용하였다.

#### IV. 인터뷰 결과

현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으로 온 마다가스카르 경제 관료들과의 인터뷰에서 본 논문의 가설을 지지하는 발언을 접할 수 있었다. 마다가스카르 기획경제부(Ministère de l'Economie et de la Planification)의 관료들은 정치적 불안정을 마다가스카르 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마다가스카르는 1960년 독립 후 세 번의 헌법을 수정하여 현재의 제4공화국 체제에 이르렀다. 1960년부터 1972년까지는 프랑스가 임명한 필리베르트 치라나나(Philibert Tsiranana)가 기존 식민 지배 세력을 등에 업고 프랑스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다가스카르를 통치하였다. 하지만 식민 지배 세력의 계속된 지배에 염증이 난 학생들과 농민들의 봉기로 인하여 치라나나는 사임을 해야 했다. 1975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곧 암살되었고, 군부가 이끄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 1993년까지 통치를 이어갔다.

그 후, 새로운 대통령 알버트 자피(Albert Zafy)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마다가스카르를 통치하였으나, 계속된 실정과 경기 침체로 인하여 탄핵을 당한다. 이후 마다가스카르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러 번의 소요 사태를

겪게 된다. 201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크 라바로마나나(Marc Ravalomanana)가 선거의 승리를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디디에 라치라카(Didier Ratsiraka)와 라마로마나나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국 재검표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라바로마나나는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2009년에 일어난 또 한번의 소요 사태로 인하여 라바로마나나는 사임하게 되고, 2013년에 헨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Hery Rajaonarimampianina)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마다가스카르는 1993년에 사회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룬 후부터 2013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선거를 치루지 못하였고, 정권의 변화가 시위, 소요, 폭력 사태, 탄핵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제부 고위 관료들은 인터뷰에서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마다가스카르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프랑스 세력이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던 1960년부터 1972년까지의 일인당 국민소득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이후의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적 저성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제부 고위 관료들은 정치적 불안정이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악화, 공공교육의 악화, 정부 투자의 악화, 공적개발원조량의 감소 등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것이 저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특히 마다가스카르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해외원조에 상당 부문 의존하고 있는데,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해외원조가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는 예로 마다가스카르는 도시 간 고속도로가 전무하고 국도조차 2차선으로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경제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물류와 인적 자원의 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모잠비크의 정치적 불안정은 마다가스카르보다 더욱 심각하였다. 모잠비크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포르투갈을 상대로 오랫동안 독립전쟁을 하였으며,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모잠비크 자유전선(Front for the Liberation of Mozambique, FRELIMO)의 활약을 통해 1975년 독립을 이루었다. 그 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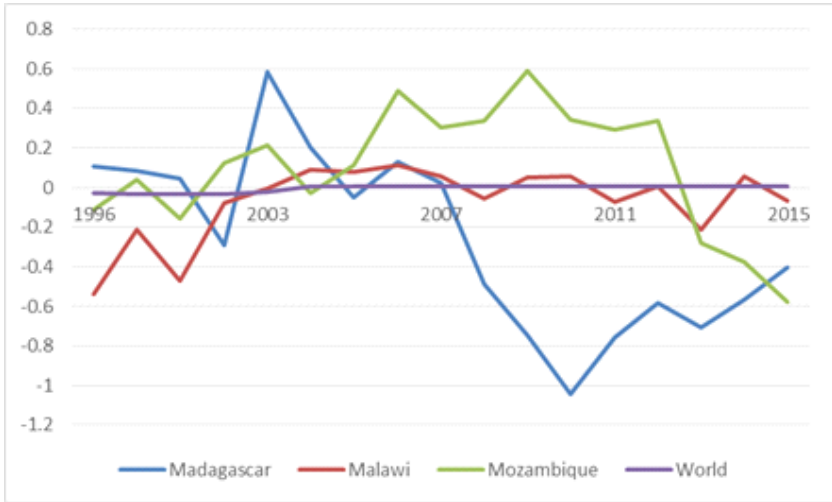
산주의 사상에 입각한 일당체제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잠비크 자유전선과 반공산주의를 주창하고 서구 민주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는 모잠비크 민족저항(Mozambican National Resistance, RENAMO) 사이에 내전이 발발했다. 1986년에는 초대 대통령인 사모라 마셸(Samora Machel)을 비롯한 내각요인들이 비행기 사고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반공산주의 세력의 암살이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마셸 대통령의 뒤를 이은 조아킹 시사누(Joaquim Chissano) 대통령은 파격적인 개혁 정책을 펼쳐 모잠비크 민족저항과 대화를 시작하였고 1990년 시장 경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다당제 민주주의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92년 마침내 모잠비크의 내전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내전은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 1977년부터 1992년까지 내전으로 인하여 100만 명의 인구가 살해당하고, 1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모두 모잠비크 자유전선이 승리하였다. 모잠비크 민족저항은 심각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모잠비크 민족저항은 2013년부터 모잠비크 중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다시금 산발적으로 군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모잠비크의 정치인은 인터뷰에서 모잠비크가 경제적 발전을 시작한 것은 내전이 끝난 1993년부터 불과 24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터뷰에 따르면,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었으며 수많은 사상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내전으로 인하여 파괴된 사회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내전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원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 역시 경제적 저성장에 영향을 끼쳤으며, 최근 시작 된 모잠비크 민족저항의 군사 공격 역시 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모잠비크의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말라위에서는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르에 비하면 정치적 불안정이 비교적





자료: 세계은행의 국가관리지수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

〈그림 2〉 정치적 안정(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지수

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말라위 의회당(Malawi Congress Party, MCP)의 지도자이자 총리였던 헤이스팅스 카무주 반다(Hastings Kamuzu Banda)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 후 말라위 의회당을 유일한 정당으로 인정하고 1971년에 스스로 종신 대통령이 되었으며 1994년에 다당제를 인정한 선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말라위를 통치하였다. 반다 대통령이 다당제를 인정하고 새로운 선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반다 대통령의 추종자와 민주주의 동맹 사이에 어느 정도의 무장 투쟁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100여 명의 사상자만이 있었을 뿐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지는 않았다. 2007년과 2012년에 선거에 관련한 약간의 정치적 불안정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심각하지 않았다. 말라위 WFP 소장과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반다 대통령이 통치하였던 독립 후 30여 년간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시기였던 반면, 다당제 민주주의가 실시된 후에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감지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다가스카르는 2009년에 일

련의 소요 상태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가장 심각했으며 그 후로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모잠비크는 모잠비크 민족저항의 무장 투쟁이 재개된 후 정치적 불안정이 심해졌다. 말라위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큰 정치적 불안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세 나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치적 불안정은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르의 경제 저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말라위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하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 영향을 알 수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라위가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말라위 전체에 만연한 부패이다. 말라위 IMF 소장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부패가 말라위 경제 저발전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말라위에는 고위 공직자부터 일반인에게까지 부패가 하나의 문화(culture)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상에 자리잡은 부패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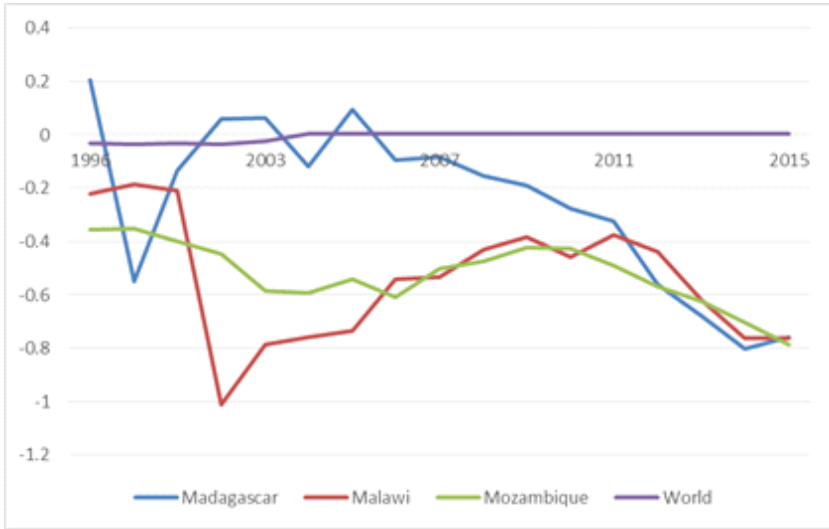
말라위에서는 부패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부패인지도, 부패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부에게 닭을 요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닭 한 마리를 사서 가정부에게 주고 나서 요리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요리가 된 닭에는 닭 다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가정부가 가져간 것이죠. 그러나 요리를 시킨 고용인은 가정부에게 왜 한쪽 다리가 없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닭의 한쪽 다리는 자연스러운 부패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따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사회가 바로 말라위 사회입니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말라위에서는 부패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IMF 소장은 말라위 국민총생산의 30%가 부패로 인하여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패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로서, 2006년 바킬리 몰루지 전 대통령이 1천100만 달러의 해외 원조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이스 반다 전 대통령은 말라

위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스캔들로 알려진 캐쉬게이트(Cash gate)를 일으켰다. 2017년 현재 캐쉬게이트에 연루된 금액이 약 2억 5천만 달러가량인데, 경찰은 캐쉬게이트가 전임 대통령인 무타리카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캐쉬게이트는 말라위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부패 상황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인터뷰 결과 모잠비크에서도 부패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에 따르면 모잠비크의 부패인식지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176개국 중 142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패지수는 100점 기준 27점으로, 이는 모잠비크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잠비크의 정치인은 부패를 모잠비크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저 없이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회의와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도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전을 극복하였던 사회지도계층이 이제는 사회부패세력으로 타락한 것 같다고 얘기하였으며,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모잠비크의 미래가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치인들이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회사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는 모잠비크의 부패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부인하거나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독립 후부터 모잠비크를 실질적인 일당 체제로 이끌어 온 모잠비크 자유전선은 국내외적으로 부패로 인한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모잠비크 WFP 소장은 모잠비크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빈국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유로 부패를 꼽았다. 그녀에 따르면, 내전 이전 마셀 대통령의 통치 시에는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이 무자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패가 적었으나, 내전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후 부패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특히 모잠비크의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해외기업들이 개발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모잠비크에 있는 천연 가스는 대부분 선진국 기업들이 채굴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굴권은 모잠비크 정부 관리의 부패에 의



자료: 세계은행의 국가관리지수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

〈그림 3〉 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 지수

해서 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WFP 소장은 모잠비크 국내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천연가스를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천연가스 채굴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집단이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과 모잠비크 고위 관리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인들은 천연자원으로 인한 수입으로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다가스카르 역시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 점은 앞의 두 나라와 비슷하다. 마다가스카르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조사대상 176개국 중 145위로 모잠비크보다도 순위가 더 낮다. 마다가스카르 고위 정부 관료와의 현지 인터뷰는 마다가스카르의 공직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먼저 마다가스카르의 공무원 선발은 대부분 고위층 인사의 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의 광산개발권의 대부분은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다가스카르의 반부패 기구인 비앙코(Bureau Independent Anti-Corruption, BIANCO)가 2004년부

터 운영되고 있으나 최고위층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아서 부패를 통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2〉에 제시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세 국가에서 모두 부패가 만연해 있고, 각 정부는 효율적으로 부패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국가 모두 부패 통제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세계 평균과 비교해보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세 국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거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을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카가메 대통령과 같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리더십이 자국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다가스카르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탄생한 현 대통령이 오히려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선거 전 경제성장을 위한 많은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효과 있는 경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카가메와 같이 국가를 통합할 수 있고 해외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든 카가메처럼 군사쿠데타로 집권을 하였든 중요한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극빈층을 없애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모잠비크의 WFP 소장 역시 리더십의 부재가 모잠비크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였다. 해외식량원조를 받아서 나눠주는 과정은 정부 관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보조가 필요한데, 모잠비크에서는 이를 이끌 효과적인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 역시 어느 정도의 독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르완다의 카가메 대통령이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이 모잠비크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서구에서 쓰이고 있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모잠비크에는 맞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대통령처럼 부패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리더는 오히려 모잠비크의 발전에 해가 된다고 덧붙

였다.

말라위 굿네이버스의 소장은 말라위의 저발전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외 자본과 다국적 기업들의 착취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말라위에 해외 자본의 활동을 규제할 강력한 리더십이 없고, 부패한 관리들이 오히려 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예로, 담배 농사와 옥수수(Maze) 농사를 들면서, 다국적 기업의 횡포가 어떻게 말라위 농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말라위에서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담배인데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팔 수 있는 거래처는 다국적 기업밖에 없다. 농민들이 담배 농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된 이유 또한 다국적 기업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담배 수매 가격을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높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이 담배 수매 가격을 내려 버리거나 양을 제한한다면 손해는 고스란히 말라위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말라위 정부가 비료와 씨앗을 다국적 기업을 통해 제공받아 시작한 옥수수 농작은 초기에는 수확량을 기존보다 2배, 혹은 3배까지 늘리며 말라위 농업을 성장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농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말라위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황폐화된 농지에 더 많은 비료가 필요하게 되고, 동시에 씨앗의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와 비례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소장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할 정부 리더십의 부재와 부패가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V. 결론

본 논문은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세 국가의 경제 저발전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적 불안정, 부

패, 리더십의 부재를 경제 저발전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증명하였다. 거시 경제에 정통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인터뷰를 통해 이 세 요소가 모두 경제적 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 사회에 만연한 부패, 비효율적이고 무능력한 리더십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거버넌스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 부재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경제 저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기에 다른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경제 저성장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을 때에도 교육 정책의 실종이 경제 저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언급이 자주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요인들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 할뿐더러 그 효과성도 떨어지므로, 본 연구는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거버넌스가 경제 저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개발도상국 저발전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에 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각국의 저발전 원인을 자유롭게 물어 보았을 때도, 거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세 요소들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였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세 국가의 경제 저성장의 요인을 밝혀내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 부패, 리더십 부재가 저성장의 원인이라면, 앞으로 이 세 국가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 조사에 투여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의 한계 등 현실적인 이유들로 인해 저발전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역사, 문화, 교육, 국제개발 등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향후 연구 주제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국가를 확장하여 비

슷한 거버넌스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보츠와나와 같이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세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학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외교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국가이다 보니, 이들 국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앞으로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한 본 연구는, 국내 아프리카 연구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빈국이 겪고 있는 상황을 비교 분석을 통해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전 세계 최빈국들은 이 세 국가가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비슷하게 겪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부패가 만연하며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내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 세가지 요인들을 다른 최빈국에 적용하여 정책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최빈국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투고일자: 2017-11-03 심사일자: 2017-11-11 게재확장: 2017-12-23

## 참고문헌

- 김시원. 2013. 「부정부패, 기술진보, 및 경제성장: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분석』 19권 1호. pp. 107-138.
- 김영완. 2016. 「경제성장에 대한 르완다와 부룬디 비교 연구: 국내외적인 요소 분석」.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pp. 1-30.
- 남궁근. 2004. 『비교정책 연구: 방법, 이론, 적용』. 서울: 법문사.
- Adamolekun, Ladipo. 1988. "Political Leadership in Sub-Saharan Africa: From Giants to Dwarf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9(2): 95-106.
- Alesina, Alberto, Sule Ozler, Nouriel Roubini, and Phillip Swagel. 1996. "Political



- In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189-211.
- Abu, Nurudeen, Mohd Zaini Abd Karim, and Mukhriz Izraf Azman Aziz. 2015. “Corrup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Is there a Causal Relationship?” *Contemporary Economics*, 9(1): 45-60.
- Barro, Robert J. 1997.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Cambridge, MA: MIT Press.
- Bardhan, Pranab. 1997. “Corrup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 1320-46.
- Berlin, Isaiah. 1978. *Russian Thinkers*. London: Hogarth Press.
- Drury, A. Cooper, Jonathan Kriekhaus, and Michael Lusztig. 2006. “Corruption, Democracy, and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7(2): 121-136.
- Ekene, Chukwuka and Ananaba Ugwunwanyi. 2016. “Leade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 Developing Economy: A Critical Look at the Nigeria’s Exper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Review*, 4(6): 105-14.
- Gyimah-Brempong, Kwabena. 2002. “Corrupti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Africa.” *Economics of Governance*, 3(3): 183-209.
- Jaouadi, Said, Lamia Arfaoui, and Azza Ziedi. 2013. “Political Instability and Growth: Cas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2(1): 19.
- Jones, Benjamin F. and Benjamin A. Olken. 2005. “Do Leaders Matter? National Leadership and Growth since World War II.”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835-864.
- Leff, Nathaniel H. 1968. *Economic Policy-Making and Development in Brazil, 1947-1964*. New York: Wiley.
- Lee, David S., Enrico Moretti, and Matthew J. Butler. 2004. “Do Voters Affect or Elect Policies? Evidence from the U. S. Hous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CXIX: 1383-1441.
-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1997. “Why Don’t Poor Countries Catch up? A Cross-National Test of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Economic Inquiry*, 35: 590-602.
- Mauro, Paolo.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681-712.
- Mbaku, John M. 1988.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Some Recent Evidence.” *The Review of Black Political Economy*, 17(1): 89-111.
- Mo, Pak Hung. 2001.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9(1): 66-79.

- Okafor-Dike, Lillian C. 2008. *The Effect of Leadership on Economic Development: A Case Study of Nigeria*. Ann Arbor: University of Phoenix.
- Olson, Mancur. 1963. "Rapid Growth as a Destabilizing Force."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3(4): 529-552.
- Przeworski, Adam and Henry Teune. 1970.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
- Saeed, Khalid. 1983.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 Systems View." *Sessions Papers*, 455-468.
- Shleifer, Andrei and Vishny, Robert W. 1993. "Corrup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 599-617.
- Svensson, Jakob. 1998. "Investment,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Instability: Theory and Evidence." *European Economic Review*, 42: 1317-1341.

## Factors of Underdevelopment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ance of Malawi, Mozambique, and Madagascar

Youngwan Kim

Associate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vision of Language and Diplomacy

Kyungmin Kim

Graduate Student,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Malawi, Mozambique and Madagascar located at Southern Africa rank in as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based on its GDP per capita. Their economic situations have become worse since they achieved independence from colonial power. This paper selects these three countries by using the most different system design and analyzes why they are poor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 through field research. We finds that political instability, corruption, and a lack of leadership contribute to the underdevelopment of Malawi, Mozambique and Madagascar. In Mozambique and Madagascar, political instability has been a strong constraint on economic growth. All three countries have suffered from severe corruption which has a bad influence over their economy. A lack of leadership also leads to a failure of policy and low quality of life in Malawi, Mozambique and Madagascar. The paper has an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 to analyze factors causing underdevelopment in African countries and create the better policies for their economic growth.

Keywords: Malawi, Mozambique, Madagascar, Political Instability, Corruption,  
Lack of Leadership

